

韓 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 ‘급등락·빚투’ 등 과열 우려도

6일 종가 기준 4799조3607억
국내외 증권사, 코스피 전망 상향
일각에선 ‘과도한 낙관론’ 지적도
신용거래용자 등 곳곳 위험신호

한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 주식시장에 이어 대만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가 연일 ‘불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내외 증권가의 ‘코스피 전망치 상향 러시’ 등 과도한 낙관론이 투자 열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8일 한국거래소(KRX)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일 종가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은 4799조360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만 주식시장 시가총액 103조 6207억9900만 대만달러(4798조6792억원)를 웃돈다.

독일 증시와 격차도 더 벌어졌다. 지난달 일찌감치 한국에 따라잡힌 독일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지난 6일 기준 2조 4015억5000만유로(약4154조8000억원)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지난해 세계 주요 증시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76% 급등한 데 이어 올해도 20.76% 상승하며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기간 독일 DAX30 지수와 대만 가권지수 수익률은 이보다 훨씬 낮은 0.94%와 9.73%에 그쳤다.

하지만 과열 신호도 곳곳에서 확인된



지난 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증시지수가 표시돼 있다.

다. 코스피, 코스닥 일평균 거래대금은 이달 각각 27조8080억원, 14조9040억원으로 전월(14조 4169억원, 11조 4599억원) 대비 1.9배, 1.3배 수준으로 늘었다. 지난해 평균(12조 4002억원, 7조 5476억원)도 크게 웃도는 규모다. 지수 흐름에 베팅하는 ETF 성적도 극명하게 엇갈린다. 최근 한 달간 코스닥 지수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역으로 투자하는 인버스 ETF 수익률은 일제히 20%대 하락했다.

일각에선 증권가가 지나치게 낙관론을 펼쳐 빚투를 유발하고 시장을 자극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2일(현지 시간) 코스피 기본 시나리오 목표치를 6000으로, 강세장 시나리오의 경우 7500으로 대폭 올렸다. 모건스탠리는 올해 말 기준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 4500에서 5200으로 올렸다. NH투자증권은 최근 코스피 12개월 목표가를 5500에서 7300으로 높였다. 정은보 한

국거래소 이사장은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주요시장과 비교해 보는 관점에서 (코스피) 6000은 넘는 데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장 위험 신호도 계속 커지고 있다. 코스피 200변동성지수(VKOSPI)는 이날 51.48까지 치솟았다. 이 지수가 30대 중후반을 넘어가면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것으로 본다. ‘빚투’ 열기도 계속이다. 코스피·코스닥 신용거래용자 규모는 지난 5일 기준 30조 7868억원에 달한다. 지난 4일에는 30조9352억원을 기록, 역대 최대 수준을 경신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달 들어 전개되는 급등락은 단기 매물 소화, 과열 해소 국면”이라며 “실적 개선 기여도가 높은 반도체를 비롯한 주도주 비중을 확대할 기회”라고 했다. 다만 추격 매수보다는 단기 변동성을 활용한 분할 매수 전략을 활용하라는 조언이다.

/허정윤 기자 zekova@metroseoul.co.kr

5년새 밀가루 36%·설탕 48% 급등

데이터처 장바구니 물가 상승 부추겨

업체 간 담합 의혹을 받는 품목인 밀가루와 설탕의 값이 수년간 크게 뛴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수시당국은 국내 주요 제분·제당 업체들을 소비자 가격 담합 등 경쟁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8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2025년 기간 밀가루와 설탕 가격은 각각 35.6%, 47.6% 급등했다. 이 2개 품목은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16.6%를 크게 웃돌았다. 또 전체 가공식품 상승률(24.0%)과 비교해도 상승 폭이 컸다.

아울러 밀가루·설탕이 주 원재료로 쓰이는 국수(51.6%)와 빵(38.0%), 케이크(31.1%), 라면(23.8%), 잼(67.2%), 비스킷(33.6%) 등도 급등세를 보였다.

먹거리 가격은 지난 5년간 원화까지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은 측면도 있다. 그러나 밀가루·설탕은 국제 원재료 가격이 오를 땐 치솟고 원재료 가격이 내릴 땐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지난해 말 기준 국제 밀 가격(톤당 190.5달러)은 2020년(240.7달러)에 비해 오히려 낮았다. 밀 가격은 2022년에 급등했다가 이후에는 크게 하락했는데, 현

재 국내 밀가루 가격은 5년 전보다 30% 이상 높은 수준이다. 국내 밀가루는 2022년 28%나 뛰었고 2023년에도 7.2% 올랐다. 국제 설탕(원당) 가격의 경우 5년간 31.2% 올랐는데 국내 가격은 47.6%나 치솟았다. 국제 설탕 가격은 2023년 정점을 찍은 이후 안정화했다. 하지만 국내에선 2024년 +12.0%와 2025년 +0.9%를 기록했다.

두 품목의 가격 상승은 이른바 ‘장바구니 물가’의 전반적 상승을 부추겼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144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물가지수가 5년간 19.6% 오르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회한 것.

생활물가 구성요소 중 식품 가격이 26.3%나 올랐다. 식품 84개 품목 중 밀가루와 설탕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품목은 국수, 빵, 아이스크림, 과자, 탄산음료 등 가공식품부터 칼국수, 짜장면, 피자 등 외식메뉴까지 10여 개에 이른다.

검찰은 이 기간 중 제분·제당 업체들이 제품가격 변동 여부, 변동 폭, 시기 등을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담합 규모는 밀가루가 5조9913억 원, 설탕이 3조2715억 원으로 추산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정부, 고효율 기기·가전 구매 498억 지원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신청 접수

정부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효율 기기·가전 구매 지원에 올 한 해 동안 총 498억원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부터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사업’과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 신청을 각각 전용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에는 398억원, 취약계층 지원에는 100억 원이 배정됐다.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사업은 사업장에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를 신규 설치할 경우 구매비용(부가세 제외)의 40%를 품목별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품목별 지원 한도는 냉난방기·냉장고 각 160만 원, 세탁기·건조기 각 80만 원

이다. 대수 제한은 없지만 사업장당 품목별 한도는 적용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중소기업확인서, 기기명판사진,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사진 등 공고문 상 증빙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가구는 구매비용의 30%, 다자녀·출산가구·대가족 등 나군은 15%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가구당 최대 지원 한도는 30만 원이다. 지원 품목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유선 진공청소기,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11개다. 신청은 한국전력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신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4대 금융그룹, 지난해 순이익 18조 육박

증권·펀드 등 비이자이익 급증
역대최대 실적… 주주환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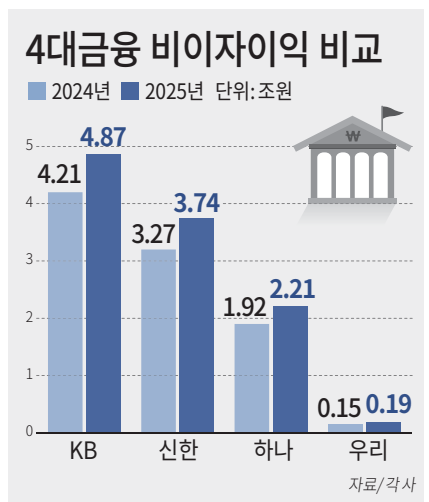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그룹이 지난해 18조원에 달하는 당기순이익을 거둬며 역대 최대 실적을 이어갔다. 주식시장 활황에 증권, 펀드, 신탁 수수료 등 비이자이익이 17% 늘면서 전반적인 성장을 이끌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순이익 기준)은 17조958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16조3532억원)보다 9.8% 늘어난 수준이다.

그룹별로 보면 KB금융이 5조8430억원으로 전년(5조0780억원) 대비 15.1% 증가하며 ‘리딩 금융’ 자리를 지켰다. 신한금융은 같은 기간 4조4502억원에서 4조9716억원으로 11.7% 성장했고, 하나은행은 4조29억원으로 전년 대비 7.1%, 우리은행도 3조1413억원으로 1.8% 늘었다.

주요 금융그룹이 최대실적을 낼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수수료 등 비이자이익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4대 금융의 이자이익은 42조9340억원으로 기준금리 인하와 주담대 대출 규제로 인해 평균 2.7%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비이자이익은 자본시장 활황과 맞물려 평균 16.6% 증가했다. 정부의 증



시 부양정책으로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고 거래대금이 늘면서 증권관련 순이익이 개선된 것이다. 은행 내 자산관리(WM), 투자은행(IB) 부문 수익확대도 실적에 기여했다.

KB금융의 비이자이익은 전년 대비 16% 늘어난 4조8721억원을 기록했다. 외환수수는 3109억원으로 전년 대비 34.1% 증가했다. 신탁이익도 같은 기간 5381억원으로 25.7% 늘었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3조7442억원으로 전년 대비 14.4% 증가했다. 수수료 이익이 2921억원으로 전년 대비 7.5%, 유가증권 관련이익이 1조9132억원으로 같은 기간 13% 늘었다.

하나금융의 비이자이익은 전년 대비

14.9% 증가한 2조2133억원으로 집계됐다.

우리금융의 비이자이익은 1조9266억원으로 전년보다 24.0% 증가했다. 지난해 그룹에 편입한 보험사의 순이익이 더해진 영향이 컸지만 유가증권, 캐피탈, 외환 등에서 수수료 수익도 고르게 늘면서 성장세를 뒷받쳤다.

4대 금융은 실적 성장을 바탕으로 올 해도 주주환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KB금융과 신한금융은 2025년 결산 배당금을 전년보다 60% 이상 늘리며 단숨에 주주환원율 50%를 넘어섰다.

하나금융과 우리금융도 주주환원 규모를 키워 4대 금융지주가 일제히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배당성향 25% 이상, 배당액 전년 대비 10% 증가)을 맞췄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 기업에 투자해 얻는 배당소득에 다른 소득을 합치지 않고 별도로 세금을 매기는 제도를 말한다. 4대 금융지주는 올해도 대규모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을 내놨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증권·보험·자산운용 등 비은행 계열사 경쟁력을 강화해온 전략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며 “거래대금 증가와 투자심리 개선이 수수료 및 유가증권 관련 이익 확대에 연결됐다”고 설명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업계 “HBM 기술경쟁 구도재편 계기 마련”

>> 1면 ‘삼성, 설 이후 HBM4…’서 계속

회사는 1b D램 양산을 위한 웨이퍼 투입을 비롯해 청주 M15x랩 증설, M16랩 공정 전환을 통해 생산 능력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가운데 외신 및 IT전문매체 테크포워드는 최근 엔비디아가 마이크론을 배제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4를 사용할 것으로 보도했다. 이에 따라 HBM4 공급 시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해당 매체는 SK하이닉스가 약 70%, 삼성전자가 약 30%의 HBM4 공급 비중을 차지

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에서는 엔비디아가 메모리 제조사에 요구한 공격적인 사양 사양이 공급사 선별의 주요 배경으로 꼽는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HBM 시장에서 경쟁사 대비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삼성전자가 HBM4 양산을 통해 기술 경쟁 구도를 다시 짜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며 “이번 양산은 특정 기업의 성과라기보다 HBM4 세대부터 공정·설계·패키징 난이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메모리 업체 간 기술 격차가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